

빅데이터로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고찰 -코로나19 경험을 중심으로-

범은애*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 Review of Christianity in the post-corona era through Big data -Focusing on the COVID-19 Experience-

Eunae Burm*
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Baekseok Cultur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세계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라는 주제로 교육학술정보원의 공유자료와 포털사이트에서 수집된 텍스트 자료를 빅데이터로 정의하고, 수집된 자료의 빈도와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술연구 자료나 뉴스보다 포털사이트에서 수집된 자료가 더 많았으며, 코로나19 중 기독교 관련 뉴스 보도는 기독교 모임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보도가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이는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촉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던 시기에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자제하는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배 본질, 신앙인으로서의 실천, 그리고 기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독교 정신을 교양으로서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 빅데이터,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신학, 기독교 세계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guiding the Christian worldview in the post-COVID era, based on an academic and social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Text data were collected from academic databases and portal sites using 'Christianity' as the keyword, which were then defined as big data. The frequency and keyword analysis results were visualized to present key trends. The findings revealed that more data were gathered from portal sites than academic research or news articles. During the COVID-19, news reports on Christianity focused heavily on virus transmission through Christian gatherings, contributing to public fear and anger. Additionally, many Christians, while refraining from gathering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were reflecting on the direction of Christian faith during the unprecedented suspension of in-person worship. In this study, we emphasized the need for in-depth discussions on the essence of worship in the post-COVID era, the practices of believers, and the public role of Christianity. In particular, we derived the recommendation that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the Christian spirit as a form of general education.

Key Words : Christian, Big data, COVID-19, Christianity, Christian worldview

*교신저자 : 범은애(burm99@bscu.ac.kr)

접수일 2024년 08월 26일 수정일 2024년 09월 23일 심사완료일 2024년 10월 02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한 장종현 박사는 종교의 사 변화를 비판하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였다[1]. 이는 신학에 대한 학문적 탐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경계에 머무르며 정체된 신학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학(學)'은 세속적인 권력 구조에 의해 형성된 탐욕적인 지식을 의미할 수 있다. 장 박사는 이러한 학문적 신학의 한계를 넘어설 것을 강조한다[2,3].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기존의 학문적 신학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정신적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4].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세속화된 일부 사변적 기독교의 문제들을 더욱 부각시키며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였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4차 산업 혁명과 초연결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의 연속성을 꿈꾸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하 코로나19)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점'으로 정의하고 있다[5,6].

코로나19는 인류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누군가는 10대에, 누군가는 20대, 30대, 40대, 직장인 혹은 CEO로서 코로나19를 경험했고, 그 경험은 개개인의 삶에 깊이 각인되었다. 코로나19의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영향으로 인해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격변의 시대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5,6].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생활방식, 업무 방식, 인간관계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아닌 세계관의 변화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위기와 격변의 시기는 변혁의 적기이며,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한 인류에게는 기술과 이성을 넘어 기독교 영성과 치유의 종교적 세계관적 전환이 필요하다.

영성 회복과 기독교 본질, 관계 회복을 위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말씀 중심의 기독교 부흥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은 이미 살아 있거나 생명력을 잃었던 일부 세속화된 기독교 정신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7]. 죽어 있던 개혁 신학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열정과 의지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표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경종을 울렸다. 새로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 지적 생명도 함께 불어넣기 위해 기독교 본질의 회복을 촉구하며, 7대 실천 운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개혁주의 신학을 계승하는 신앙 운동이다. 둘째,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학은 학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고백하는 신학 회복 운동이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 됨을 추구하는 회개와 용서 운동이다. 넷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생명 운동이다. 다섯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여섯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세상과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나눔 운동이다. 일곱째, 오직 성령만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을 가능하게 함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이다. 이러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기독교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불처럼 번지며 거룩하게 타올랐다. 그 결과,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한국 교회의 연합 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8,9,10,11,12,13].

중세 가톨릭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말씀)의 권위보다 교황과 전통의 권위를 우선시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수많은 설교를 통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되찾을 것을 강조하며 종교개혁을 이끌었다. 복음이 전파된 지 백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단시간의 큰 부흥을 이룬 '명(明)'에 반해,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가는 '암(暗)'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최초 복음이 전파되었던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이때, 장종현 목사의 '개혁주의생명신학'은 다가오는 종교개혁 1,000년을 향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며 개인 간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을 자제하던 시기, 일부 기독교 집단의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정부와 방역 당국과의 갈등이 발생했다. 대부분이 유사 기독교 집단과 그 일원들이었지만 일부 기독교 종파와 신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태의 민낯은 미디어(방송 및 신문 등 아날로그 정보소스)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media, 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으로 사용자간 정보교류소스, 이하 SNS)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어 기독교 신앙

과 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심화시켰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은 자극적인 소재로 과잉 확대 및 재생산되며 악순환이 반복되었다[14,15,16,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용량 정보 확산은 스마트폰과 SNS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 2010년,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기반으로 한 SNS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정보와 데이터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고, 사회 각 분야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방법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빅데이터는 문자 그대로 '큰(Big) 자료(Data)'를 의미하며, 라틴어 'dare(주다)'에서 유래한 'daaum'에서 '주어진 것'을 뜻하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 '주어진 또는 인정된 사실(A fact given or granted)'을 의미하게 되었다. '큰-거대한-방대하다'는 Big의 어원은 13세기 힘센(powerful), 강한(strong)의 의미였으며 점차로 '많은'의 의미로 변화되었고, 자료(DATA)는 구체적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는 표상(representation)을 뜻하여 빅데이터는 물리적 현상을 기록하는 인간 언어로서 '강력한 자료'라는 의미를 가진다[18].

빅데이터는 초 단위로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하며, 이를 통해 정보의 '채굴(Mining)' 또는 '발굴'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빅데이터는 금이나 석유와 같은 산업자원으로 여겨지며, 5V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Volume(자료량)', 'Velocity(자료 처리 속도)', 'Variety(자료의 다양성)', 'Value(가치)', 그리고 'Veracity(정확성)'. 이들은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료 분석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려는 학문적 여정의 일환으로 여겨진다[18].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8]. 연구방법론의 세 측면(자료, 분석, 이론)에서, 빅데이터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과 수집 모두를 포함하는 물론 수치자료뿐만 아니라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포함하며, 기존 표집 방식을 넘어 모집단 전수조사를 표방하는 양적·질적 자료를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관련 전문가, 일반인, 언론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기독교' 주제어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포털사이트(www.naver.com), 그리고 언론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빅카인즈, www.bigkinds.or.kr)에서 '기독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

둘째,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기에 언론에 비취진 기독교의 모습을 비교·분석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이해: 국내 기독교 학술연구의 현황을 연도별로 빈도 분석하고, 학술연구에서 다루어진 주제어의 빈도 및 관계 양상을 분석하여 시각화한다.

둘째,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이해: 지식 공유 플랫폼에서 '기독교'를 주제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어의 빈도 및 관계 양상을 분석하고 시각화한다.

셋째, 코로나19 시기 언론에 비취진 기독교의 모습 비교 이해: 언론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빅카인즈)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코로나19 시기를 대상으로 '기독교'를 주제로 한 자료의 빈도 및 관계 양상을 분석하고 시각화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인식을 이해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독교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양한 관점을 담지한 방대한 자료(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전문가와 일반인, 그리고 언론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정의하고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2.2 데이터베이스 선정 및 자료수집

데이터베이스는 기독교에 대한 전문가 관점에서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일반인 관점에서 네이버 포털사이트(www.naver.com), 언론 관점에서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뉴스 자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도 별도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독교'를 주제로 검색, 검색된 자료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 선별, 선별된 자료의 텍스트 데이터 추출, 데이터의 전처리(불필요한 문자 제

거, 형태소 분석 등) 과정을 거쳤다. 자료수집 현황은 다음의<Table 1>과 같다.

<Table 1> Methods of searching and collecting data

	Academic research data	Search term data (Knowledge in)	News (Bigkinds)
Source	Title, author, abstract, keywords, publication date, publisher, etc.	Title, URL, question and answer content, author and date of writing, etc.	Title, text, media outlet, date, keywords, location, person, URL, etc.
Period	1990.1.1.~2022.12.31	1990.1.1.~2022.12.31	1990.1.1.~2019.12.31 2020.1.1.~2022.12.31
Case	54,835 (Academic research 33,819, Degree research 21,016)	487,517	177,401 (21,810)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Python (V_3.11.1)과 R (V_4.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집된 비정형 텍스트들은 교정 작업, 정제 작업, 불필요한 데이터 제거 및 유목화 작업을 거쳐 연구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로 전처리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주요 핵심어(주제어)의 출현 빈도와 순위, 연결, 관계망(network word)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다음 주제어 빈도 양상 분석으로 주제어 빈도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을 키워드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로 주제어들의 빈도양상을 수치화 및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관계 양상 분석으로 주제어들의 군집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망 분석(keyword social network analysis)을 위해 주제어들의 중심성(centrality), 밀도(density), 집

중성(centralization) 수치를 계산하여 관계망의 군집 양상을 그래프(그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술 빅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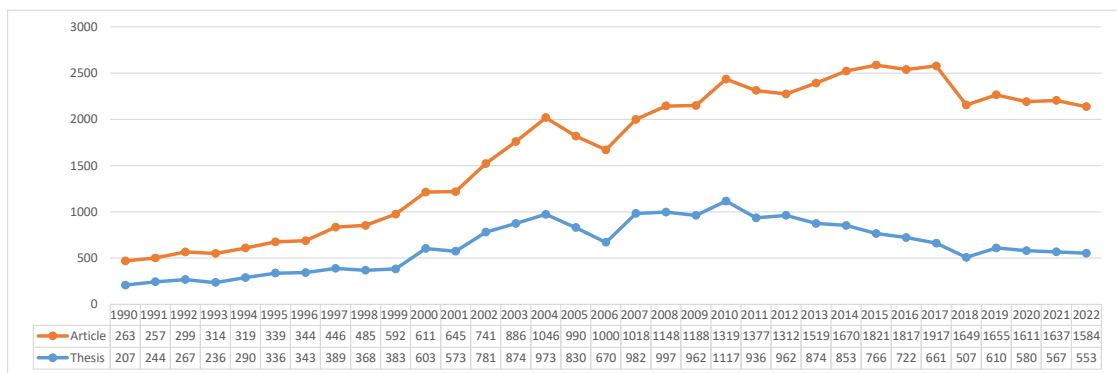
3.1.1 기독교 학술연구의 빈도 분석

기독교 학술연구의 연도별 빈도 현황은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를 통해 기독교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4년과 2011년에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2018년 이후에는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다. 주목할 만한 점은, 1900년대 초반부터 이미 기독교 학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학술연구 활동 역시 함께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독교 연구의 오랜 역사적 흐름을 반영하며,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연구가 꾸준히 발전해 왔음을 보여 준다.

3.1.2 기독교 학술연구 텍스트마이닝 시각화

기독교 학술연구의 텍스트 마이닝 시각화 결과는 Figure 2와 Figure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기독교 학술지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학위 논문에서는 ‘기독교학술원’, ‘기독교교육’, ‘언론보도기사’, ‘기독교대학’, ‘그리스도인’, ‘기독교문학’,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교회사’, ‘기독교상담’, ‘일제강점기’, ‘이단사이비’, ‘삼위일체론’ 등이 많이 언급되었다.

반면, 학술논문에서는 ‘신학’, ‘교회’, ‘시대’, ‘한국’, ‘하나님’, ‘한국교회’, ‘종교개혁’, ‘신학적’, ‘기독교학술원’, ‘기독교교육’, ‘영성’, ‘언론보도기사’, ‘역사’, ‘경험’ 등의 주제어가 자주 등장하며, 학위 논문과 차이를 보였다.



[Fig. 1] Frequency analysis of Christian academic research

특히, 학술논문과는 달리 학위 논문에서는 ‘한국기독교장로회’와 ‘개혁주의생명신학’이 신학을 시작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중요한 테마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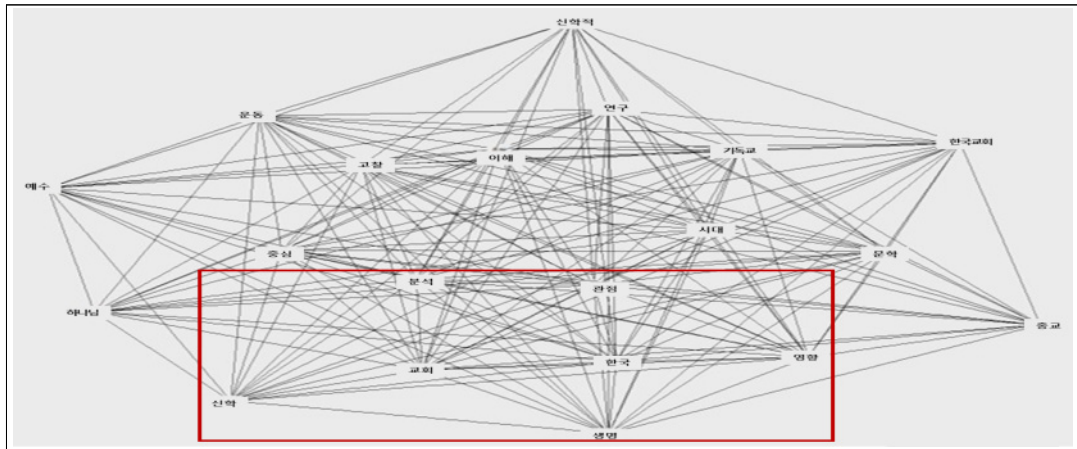


[Fig. 2] Word cloud of thesis top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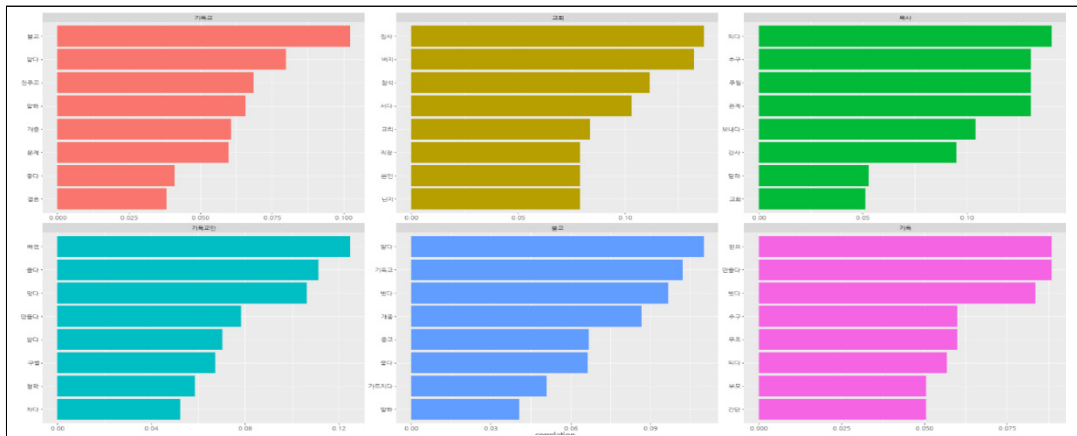


[Fig. 3] Word cloud of article top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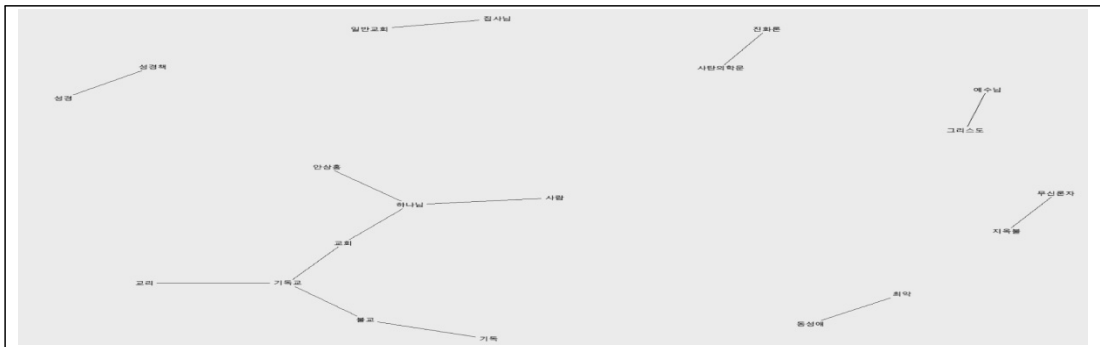
Figure 4는 기독교 학술연구 관계망 분석을 시각화한 결과이다.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어는 '관점'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 문학, 이해, 고찰, 중심, 연구 등이 연결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점'과 이어진 한국, 생명, 교회, 영향, 신학 등의 부분이다. 이를 통해 생명신



[Fig. 4] Visualization of Christian network analysis in academic (thesis and article) research



[Fig. 5] Visualization of keyword cluster analysis



[Fig. 6] Visualization of network clustering analysis

학이 한국 교회 및 신학에 새로운 관점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다.

3.2 포털사이트(지식in)

기독교 검색엔진(지식in)의 텍스트 마이닝 시각화 결과는 Figure 5와 Figure 6에 제시되어 있다. 주제어 군집 분석 결과, 기독교, 교회, 목사, 기독교인, 불교, 기독교의 6개 주제어로 군집화되었다. 기독교는 불교, 천주교, 개종, 결혼 등의 하위 주제어로 구성되었으며, 교회는 집사, 참석, 교리 등의 하위 주제어로 구성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기독교와 함께 군집화된 불교로, 불교는 기독교인의 개종 대상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불교가 기독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6은 관계망 군집분석을 시각화한 결과이다. 주제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기독교', '교리' 등이 군집되었으며, 진화론은 '사탄의 학문'과, 동성애는 '죄악'과, 무신론자는 '지옥불'과 군집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7] Media Word Cloud 202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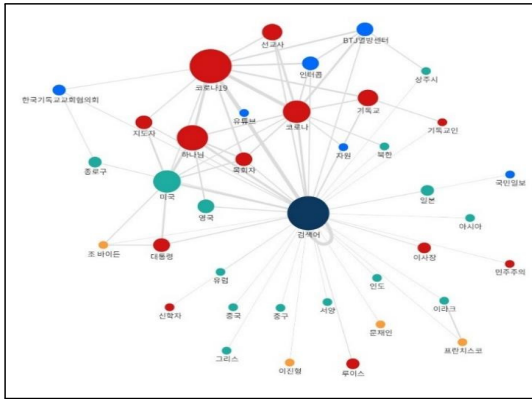


[Fig. 8] Media Word Cloud 199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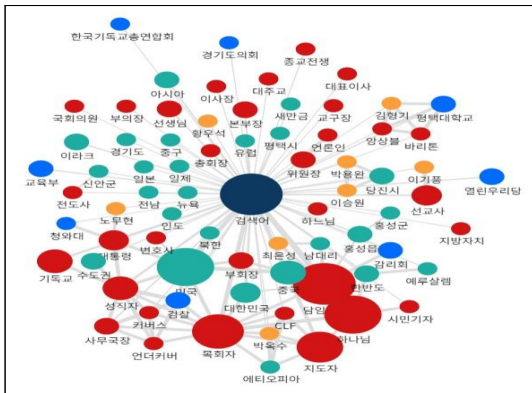
3.3 미디어 빅데이터(빅카인즈) 분석

기독교 미디어 빅데이터 워드클라우드를 Figure 7과 Figure 8에 제시되어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 'IM선교회', '인터콥', 'CLF 월드 컨퍼런스' 등의 단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기독교'와 '코로나 확산'에 대한 주제어들이 많이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부터 2019년은 '하나님', '이슬람', '천주교', '예수', '불교', '동성애' 등이 나타나며, 이 시기에는 기독교와 관련된 폭넓은 기사와 다양한 관심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미디어 빅데이터 관계망 분석 시각화는 Figure 9와 Figure 10에 제시되어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워드클라우드와 유사하게 '코로나', '인터콥' 등의 주제어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주제어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는 미국, 중국, 북한 등 국가별 기독교 관련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며, 이는 다양한 국가의 기독교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9] Visualization of Media Network Analysis 2020-2022



[Fig. 10] Visualization of Media Network Analysis 1990-2019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통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독교'를 검색어로 사용하여 학술자료, 포털사이트(지식in), 그리고 뉴스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텍스트 마이닝 및 주제어 분석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연구, 포털사이트, 미디어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학술연구 자료와 뉴스 자료에 비해 포털사이트 자료가 더 많았다. 코로나19 시기의 포털사이트(지식in) 자료에서는 기독교와 코로나 확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신천지 및 특정 인물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질문의 빈도도 매우 낮았다. 반면, 같은 시기의 미디어 빅데이터(빅카인즈)에서는 기독교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어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된 'IM선교회', '인터콥', 'CLF', '신천지', '전광훈'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디어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기독교를 타깃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디어의 상업적 특성상 갈등을 프레임화하여 자극적인 기사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는 국민들이 코로나19로 느끼는 막연한 공포를 기독교와 교회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Reuben(2021)의 연구에서 지적한 미디어가 공포를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5]. 이 연구는 인도의 타블리기 자마트 사건에서도 미디어가 특정 종교를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묘사하면서 그 집단 전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된 사례를 지적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미디어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증폭시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보도 경향은 일반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교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코로나19 위기 동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적 위기를 공감하며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활동을 자제하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려 하였다[16]. 또한, 대면 예배가 전면 중단되었던 시기에 신앙 실천, 예배의 본질 정립, 교회의 공적 역할 등 기독교 재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미디어를 제외한 학술자료 및 검색어(지식in)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박진우 연구(2021)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비대면 예배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비대면 예배가 기독교인들에게 완전한 예배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과 대면 예배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를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면 예배가 중단된 것은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으나, 이를 통해 한국 기독교는 자극적인 미디어 프레임을 벗어나 기독교와 예배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검색어(지식in) 빅데이터 네트워크 군집 분석 결과, 진화론은 사탄의 학문, 무신론자는 지옥불, 동성애는 최악 등의 편견적인 연결이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가지는 질문들 속에 편견이 내재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박진우(2021)의 'COVID-19 이후의 기독교 예배참여자의 비대면 예배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만큼 신성한 예배로 여겨지

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과 종교적 책임감의 혼란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16]. 본 연구의 빅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편견이 실제로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심도 있는 기독교 학술 연구 외에도 기초 교리에 대해 쉽게 설명하는 대면 및 비대면 강연과 자료 배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온라인 데이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오프라인에서의 인식이나 활동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텍스트 데이터만을 분석하여 이미지나 영상 등 다른 형태의 정보는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더욱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계가 대중과의 소통을 개선하고,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를 거친 대한민국 기독교는 심층적인 종교 이해와 실천이라는 전문 영역, 그리고 대중 참여와 기독교 소양 함양을 위한 이해를 제안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는 재개념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인, 연구자, 일반인 모두에게 기독교 정신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니체는 "아, 신은 죽었다. 누가 신을 죽였는가?!"라고 외쳤다. 이는 강력한 울림이 있는 말이다. 기독교를 안다고 자처하는 지식이 신을 죽였을 수 있지만, 그 말이 신을 다시 살릴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둘 다 같은 '말'이지만, 이는 인간의 말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사변화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사변화된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 생동하게 될 것이다. 생명신학은 신앙과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불씨이자 희망이다.

REFERENCES

- [1] Lee, S. S., "A Study on the Pastoral Direction of Reformed Life Theology," *Journal of Reformed Life Theology*, Vol.39, No.2, pp.52-83, 2024. DOI: 10.33135/srlt.2024.39.2.52.
- [2] Jang, J., "The Bible is the Answer," *Kookmin Ilbo*, May 24, 2021. <http://news.kmib.co.kr/article/print.asp?arcid=0924192677>, May 25, 2021.
- [3] Jang, J., "The Bible is the Answer," 3rd Reformed Life Theology Forum, October 25, 2010, pp.34-38.
- [4] Baekseok Univers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Dr. Jang Jong-Hyun: Educational Leadership of Baekseok University, Seoul: Baekseok University, 2007, pp.41-44.
- [5] Biswas, D., Chatterjee, S., & Sultana, P., "Stigma and Fear During COVID-19: Essentializing Religion in an Indian Context," *Natur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Vol.8, No.1, pp.1-15, 2021.
- [6] Ng R. Chow T.Y.J, Yang W., "News Media Narratives of Covid-19 Across 20 Countries: Early Global Convergence and Later Regional Divergence," *PLOS ONE*, Vol.16, No.9, pp.1-25, 2021.
- [7] Jang, J., *Seven Practical Movements of Reformed Life Theology*, Seoul: Baekseok Spirit Academy, 2018.
- [8] Jang, J., *Explanatory Notes on the Declaration of Reformed Life Theology for Lay People*, Seoul: Baekseok Spirit Academy, 2010.
- [9] Jang, J., "Reformed Life Theology," 1st Baekseok University Reformed Life Theology Forum, December1, pp.9-14. 2008.
- [10] Jang, J., *Theology is Not an Academic Discipline*, Cheonan: Baekseok University Baekseok Spirit Academy, 2013.
- [11] Kim, C., "The Response of the Korean Church to the COVID-19 Situation and Missiological Reflection: Analysis of Issues and Practical Response Strategies Through 'Big Data-Text Mining Techniques',"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Vol.48, pp.14-36, 2021.
- [12] Jang, J., *Declaration of Reformed Life Theology*, Seoul: Baekseok Spirit Academy, 2017.
- [13] Jang, J., *Exposition of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from the Perspective of Reformed Life Theology*, Cheonan: Baekseok Spirit Academy, 2015.
- [14] Jang, J., *Founding Spirit of Baekseok Education Foundation*, Cheonan: Baekseok Spirit Academy, 2014.
- [15] Jang, J. (2021). "The Media's Role in Amplifying Religious Conflic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hristian Media Studies*, 5(2), pp.50-70.
- [16] Park, J.,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on-Face-to-Face Worship Among Christian Worship Participants After COVID-19," *Theology and Praxis*, Vol.74, pp.85-115, 2021.
- [17] Yang, G., "A Study on 'On-tact'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Corona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Vol.68, pp.41-76, 2021.
- [18] Bae, J., & Burm, E., "A Genealogical Understanding of the 2018 Private Kindergarten Scandal Using Big Data," *Journal of Ar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8, No.12, pp.857-868, 2018.

범 은 애(Eunae Burm)

[정회원]



- 2013년 2월 :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예방의학석사)
- 2016년 8월 : 단국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6년 5월 ~ 2015년 2월 : 단국대학교의료원 연구원
- 2018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 간호, 빅데이터